

#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식

### 넥세온코리아, 최초의 상용 대량생산 위한 군산시 투자 결정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8일 넥세온코리아가 군산발전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 하나인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넥세온코리아는 영국 옥스퍼드셔에 본사를 둔 영국기업(대표 Scott Brown)으로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체의 선두로 주목받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한 차세대 음극재로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과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엔 실리콘을 5~10% 배합한 1세대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되었으며 넥세온의 음극재는 2세대로 불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신

영대 국회의원, 군산사회회 김영일 회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넥세온 관계자는 “군산 생산공장의 음극재는 NXP라는 제품명으로 생산될 것이며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를 최대 50%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NXP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 시장 최대 화두인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넥세온코리아는 이미 파나소닉과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여기에 군산시의 대표기업 OCI와 2023년부터 5년간 실리콘 음극재용 핵

심소재인 실란(SiH4)을 직접 공급하기로 계약해 향후 실리콘 음극재의 상용 대량생산을 위한 원료공급망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넥세온코리아의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곳 군산에서 생산된 제품이 세계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소재 부문에 있어서 상용화가 되고 최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축하를 전했다.

군산시는 계속해서 기업들의 공장 신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가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다양한 여행상품을 선보이며 봄철 여행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여행하기 좋은 봄, 익산에서

### ‘여행가는 달’ 맞이 웰니스 여행 등 다양한 여행상품 선보여

익산시가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다양한 여행상품을 선보이며 봄철 여행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익산의 아름다움(多)을 웰니스 여행과 ‘고백(Go Back) 익산 여행’, ‘동행! 백반 여행’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익산의 아름다움(多)을 웰니스 여행은 익산이 보유한 전국 최고의 한방 산업을 지역 관광 명소와 연계한 상품으로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중앙년층 여행 콘텐츠 제공 플랫폼 ‘노는 법’,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만들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연계된 한방 힐링센터에서 1:1 한방검사, 침치료 등 힐링프로그램, 한방 아로마 테라피 체험이 가능하다. 이어 아가페정원의 청량한 자연에서 지역 음식을 맛보는 ‘팜 파티(Farm Party)’를 경험하고 춘포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웰니스 여행은 다음 달 6~7일과 13~14일에 운영되는 상품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었으나 조기예매가 완료됐다. 현재 신청할 경우 대기자로 선정되고 취소자가 발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3월 중 운영을 시작한 ‘고백(Go Back) 익산 여행’과 ‘동행! 백반 여행’도 익산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고백 익산 여행은 1인당 15,000원에 이용 가능하고 원불교총부, 아가페정원, 왕궁포레스트, 보석박물관, 국립익산 박물관을 방문한다. 현재까지 3회 운영에 48명의 관광객이 참여했다.

백반 익산 여행은 지금까지 2회 운영에 40명의 관광객이 함께했으며, 원불교 총부, 고스락 아가페정원, 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유적을 방문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관광객들은 두 여행 상품 모두 식사와 체험비가 포함된 합리적 가격으로 익산의 관광 명소를 하루에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익산=이재춘기자

## 스마트도시 청사진 완성...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기틀 마련... 5대 목표 · 10대 추진전략 제시

익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익산시의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서비스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품격도시, 다(多)이로운 스마트 익산’을 비전으로 교통도시, 안심도시, 성장도시, 녹색도시, 문화도시를 5대 목표로 설정했다.

10대 추진전략은 △보행자 교통사고 저감 환경 조성 △세각형 스마트 교통

시설 구축 △스마트 주거 환경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을 구축 △스마트도시 운영 및 거버넌스 환경 조성 △디지털 핵심산업 기반 구축 △탄소중립 기반 환경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 △주야 시간 관광객 불거리 조성 △온·오프라인 체험형 스마트 관광 환경 구축 등이다.

특히, 시는 교통, 안전, 복지 등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의 각 권역 특성에 맞는 도

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국토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으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구축 기반이 마련됐다”며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교통, 방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경주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학생들 백제 왕도 현장 학습

백제 왕도 익산시에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경주시의 대학생들이 방문했다.

익산시는 경북 경주시 소재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학생 100여 명이 백제 문화유산 답사를 위해 28일 익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임절리고분전시관과 국립익산박물관 백제왕궁박물관을 차례로 방문, 익산의 백제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이있는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첫 방문지인 임절리고분전시관에서는 고대 백제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을 엿볼 수 있는 고분 문화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성·웅진·사비시대 백제 무덤 양식의 변천 과정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의 고대사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했다.

이어 국립익산박물관과 백제왕궁박물관에서는 백제 왕궁인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화려하게 꽃핀 백제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아울러 백제왕궁과 주변 유적의 관계를 조명해 왕도 익산의 역사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책에서만 접하던 백제 역사가 생동감 있게 다가왔다”며 “백제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인사를 담당한 교수는 “이번 박물관 방문이 학생들에게 고대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심어주는 귀중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백제 왕도 익산 현장 학습이 고고미술사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사업 4개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4년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서 스튜디오 솜사탕(주), 오막 길위의 청년학교, (주)스튜디오제트 등 군산시 4개팀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청년이 구상하고 제안한 사업을 심사해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5인 이상의 청년단체와 법인이며, 선정된 팀에게는 사업당 최대 5,00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지원해준다.

올해 공모에는 8개 시·군의 청년

단체 26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서류심사, 온라인 청년투표,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3팀이 선정되었다.

군산시는 무려 4팀이 뽑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다. 선정된 사업들 역시 지역문화, 상생 프로젝트, 소통형 콘서트, 교육 지원사업,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 사업까지 재기발달하면서도 신선한 내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군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전국 평가 ‘최우수’ 등급

익산시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평가대상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가 모두 최우수(A등급) 평가를 받았다.

해당 기관은 인화동 익산시장 애인종합복지관과 부송동 동그라미유해의집, 부송동 동그라미 희망의집이다.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국 규모의 평가이다.

전국 1869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 운영 전반 등 항목별로 평가해 A등급부터 F등급까지 결정한다.

【익산=이재춘기자

#### 대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셔틀버스 4월 운행 재개

군산시가 지난 1월 12일부터 중단되었던 군산시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4월 1일부터 재개한다.

운영에 앞서 시는 수영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무방할 것이라는 선관위 회담을 받았다.

또한 추후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시 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자 징수조례’에 수영장 이용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

군산시는 생활 체육의 진흥과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 30여 년 간 수영장 셔틀버스를 운행해왔다.

현재 45인승과 25인승 총 2대를 운행 중이며 지난해 5월 월명수영장 보수·보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노선을 대야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여 운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내권과 대야국민체육센터를 왕복하는 경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